군산시, 인구늘리기 올인

인구정책위 열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정착금 지원 등 논의
분야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특색 있는 인구정책 추진

군산시가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지역민의 특색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17일 저출산 등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급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가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에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군산시 인구 현황 및 5개 분야 58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와 정책 개선에 대한 건의, 향후 군산시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년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92명(전년도 비교 0.05명 감소)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인 배형원 군산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실시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해 외국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표했으며, 본 사업에 대해 우리시의 인구감소 대책 방안 등을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위원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착금을 지원하는 대신, 한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고, 두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의 삼분의 일을 탕감해 주며, 세명의 아이를 낳을 경우 전액 탕감을 해주는 사업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이 회의를 토대로 군산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정착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 부처 등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이번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군산시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분야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정책 실무부서 TF팀을 구성하여 군산시민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힘내세요"… 군산시 새마을회, 대구시민 어루만지다

자매결연 동구 주민들 격려
100만원 상당 위문품·편지

군산시 새마을회는 17일 군산의 자매결연 도시인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과 격려 손 편지 등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동구 주민들을 위해 군산시 새마을회(회장 정수영)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다. 17일 군산시 새마을회는 군산의 자매결연 도시인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과 격려 손 편지 등을 전달했다.

현재 대구는 6,06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심에 인적이 끊기고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버린 상황, 이에 평소 새마을 정신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에 앞장서 왔던 군산시 새마을회가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회를 통해 대구시민들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정수영 군산시 새마을회장은 "대구시와 아픔을 같이 하고 함께 역경을 헤쳐 나가자는 의미로 이번 전달행사를 진행했다"며 "힘든 시기인 만큼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수제맥주 특화사업장 운영자 모집

군산시는 금암동 소재의 '군산 째보스토리 1899'(구, 수협창고) 1층에 추진하고 있는 수제 맥주 특화사업의 영업장 운영을 위한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로 수제 맥주 양조기술을 보유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적합한 자로 수제 맥주 특화사업장에서 자체 생산된 맥주만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제 맥주 특화사업은 지난 2019년 2차 목적예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 2020년 시비 3억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양조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3월에는 영업장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했다. 영업장 조성과 양조장비 구축 후에는 선정된 운영자에 대한 컨설팅 및 양조 기술교육과 양조장비 시험운행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농촌활력지원센터와 전자상거래 지원단 IT전문가 총 8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함라 탑고지 마을에 방문해 택배 박스 포장등 일손을 보탰다.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일손돕기 눈길

함라 탑고지 마을 뒤안 마늘 주문량 폭증… 택배 박스 포장 등

익산시가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마을 전자상거래가 코로나19로 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청 관계자들이 일손 돕기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촌활력지원센터와 전자상거래 지원단 IT전문가들 총 8명이 전자상거래의 주문량 폭증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함라 탑고지 마을에 방문해 택배 박스 포장등 일손을 보탰다.

탑고지 마을은 뒤안 마늘을 주력 상품으로 마을 주민이 함께 재배해 공동출하해 판매 수익은 마을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해왔고 올해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에 입점 약 3일만에 전국에서 쏟아지는 주문량이 예상보다 폭증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는 빠른 배송이 관건이나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신속히 배송작업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농촌활력지원센터와 IT전문가들이 잠시 업무를 중단하고 직접 뒤안 마을을 방문해 응급 처치를 하며 원활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탑고지 마을 한 주민은 "익산시에서 우리 마늘을 전국에 팔아준다고 하니 아무리 손이 느려도 어떻게든 택배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농촌활력과에서 때마침 나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거 같아 보람있었다."라며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등의 수급도 여의치 않고 농가마다 일손 부족이 심화되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라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익산시는 지리·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동생, 손자녀를 둔 농촌지역 거주 전업 농어업인이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거나 농지 소유면적 5ha 이상, 농어업 외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미래농업과에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0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총 9개분야 196개 일자리이며 이번 모집에서는 4월에 시작되는 3개 사업으로 14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사업으로는 청년 사회문화서비스 기획가 양성사업, 청년 노동활동가 양성사업 및 청년 큐레이터 양성사업으로 시에서는 인건비 일부 와 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분) 등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일경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접수는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5번창구(450-1307)에 접수하면 된다.

모집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청년 대상 사전설명회를 거쳐 30일 군산시 청년뜰에서 기업과 청년을 연계하는 미니 취업박람회 형식의 청년-기업 매칭데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서동축제 잠정 연기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익산서동축제' 일정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로 미뤄졌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감안하여 축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개최 연기를 결정했다.

향후 감염증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며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최 일정을 결정하고 축제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바뀌는 일정에 맞춰 다시금 구성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